

8 일차

매일 매일 꾸준히!

하루는 짧지만 그 하루가 모이면
당신의 생각 그 이상의 것이 된다.

[1 ~ 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향현(香峴) 박두진

아랫도리 다박술 깔린 산 넘어 **큰 산 그 넘엇산** 안 보이며 내 마음 등등 구름을 타다.

우뚝 솟은 산, 목중히 었드린 산, 골골이 장송(長松) 들어섰고 머루 다텔넝쿨 바위 영서리*에 얽혔고, 살살이 떡갈나무 역새풀 우거진 데 너구리, 여우, 사슴, 산토끼, 오소리, 도마뱀, 능구리 등, 실로 **무수한 짐승**을 지니인,

산, 산, 산들! 누거 만년(累巨萬年)* **너희들 침묵(沈默)이 흠뻑 지리함 축하매**,

산이여! 장차 너희 솟아난 봉우리에, 었드린 마루에, **확 확 치밀어 오를 화염**을 내 기다려도 좋으랴?

핏내를 잊은 **여우 이리 등속**이 사슴 토끼와 더불어 싸릿순 뿔순을 찾아 함께 즐거이 뛰는 날을 믿고 길이 기다려도 좋으랴?

* 영서리 : 사이.
* 누거 만년(累巨萬年) : 아주 오랜 세월.

(나) 꽃씨 문병란

가을날
빈손에 받아 든 작은 꽃씨 한 알!

그 술한 잎이며 ㉠꽃이며
찬란히 빛깔이 사라진 다음
오직 한 알의 작은 꽃씨 속에 모여든 가을.

빛나는 ㉡여름의 오후,
핏빛 꽃들의 몸부림이며
뜨거운 노을의 입김이 여물어
㉢하나의 무게로 만져지는 것일까.

비에의 껍질을 모아 불태워 버리면
갑자기 뜰이 넓어가는 가을날
내 마음 어느 깊이에서도
고이 여물어 가는 빛나는 외로움!

오늘은 한 알의 꽃씨를 골라
기인 기다림의 창변에
화려한 어젯날의 대화를 묻는다.

(다) 침엽수 지대 김명수

깊은 밤 눈 덮여 ㉣고적한 곳에
꽃꽂이 머리를 하늘에 두고
㉤침엽수들이 서 있다

먼 산맥을 이어

내어달리고 싶은 마음이건만
㉥푸르른 정열에 가두어두었다

눈이 내리면 온몸에 흰눈을 이고
바람이 불면 우우 소리를 낸다

일월성신 잦은 계절의 변화에도
일새조차 변하지 않음은 태고적 고독인가

㉦차운 바람 부는 날에도
나무는 오히려 위엄을 잃지 않는다

그러기에 겨울밤 차가운 별도
침엽수 머리 위에 더욱 반짝인다

1.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시간과 관련지어 대상의 의미를 이끌어 내고 있다.
- ② 역설적 표현을 활용하여 정서를 심화시키고 있다.
- ③ 시상의 반전을 통해 인식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 ④ 감정의 절제를 통해 객관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 ⑤ 시선의 이동에 따라 시상이 점층적으로 고조되고 있다.

2.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향현」에는 일제 강점기에 민족공동체가 처한 고압적이고 잔혹한 현실 상황을 극복하고 새로운 세계를 지향하려는 작가 의식이 담겨 있다. 따라서 이 작품 속의 자연은 시인의 상상 에 의해 여과되고 굴절된 과정을 거친 ‘새롭게 태어난 자연’이며, 약육강식의 논리에 의해 지배되는 상황을 극복하고 모든 구성원들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살 수 있기를 염원하는 작가의 바람이 깃들어 있는 공간이다.

- ① ‘큰 산 그 넘엇산’은 현실과 대비되는 공간이며 화자가 마음속 으로 염원하고 있는 세계라고 할 수 있군.
- ② ‘무수한 짐승’은 산을 구성하는 존재들로 화자는 이들의 조화 로운 공존을 바라고 있군.
- ③ ‘너희들 침묵(沈默)이 흠뻑 지리함 축하매’에는 암울한 상 황에 대해 답답해하는 화자의 정서가 드러나고 있군.
- ④ ‘확 확 치밀어 오를 화염’에 의해 부정적 현실이 타개되기를 화자는 기다리고 있군.
- ⑤ ‘여우 이리 등속’은 평화롭게 살아가는 약자들의 삶을 유린할 강자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군.

3. ㉓와 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㉓는 능동적 존재이며, ㉔는 수동적 존재이다.
- ② ㉓는 선망의 대상이며, ㉔는 연민의 대상이다.
- ③ ㉓는 변화하는 존재이며, ㉔는 항구적 존재이다.
- ④ ㉓와 ㉔는 모두 화자의 자궁심을 드러내는 대상이다.
- ⑤ ㉓와 ㉔는 모두 시대 현실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4. ㉑~㉔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㉑ : ‘핏빛 꽃들’이 ‘몸부림’하는 시기로, 내면적 성숙이 이루어진 시기라고 이해할 수 있다.
- ② ㉒ : ‘만져지는’ 느낌을 무게감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때, 꽃씨가 지닌 의미를 인식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 ③ ㉓ : ‘깊은 밤 눈 덮여’ 있는 곳으로, 어둡고 추운 공간으로 형상화되어 있다.
- ④ ㉔ : ‘내어달리고 싶은 마음’을 ‘가두어두었다’는 표현과 관련지어 볼 때, 욕망을 제어하고 있는 내적 의지로 볼 수 있다.
- ⑤ ㉔ : ‘오히려 위엄을 잃지 않는다’라는 구절로 보아 ‘나무’의 가치를 더욱 부각하고 있다.

[5 ~ 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명나라 남양 땅의 양산백과 평강 땅의 추양대는 운향사에서 서로 만나 가연을 맺기로 약속하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온다. 하지만 추양대는 아버지에 의해 심의량과 결혼을 하게 된다. 이를 알게 된 양산백은 추양대가 왕래하는 길에 자신의 시신을 묻어 줄 것을 부모에게 부탁하며 상사병으로 죽은 후, 추양대의 꿈에 나타난다.

산백이 낙루 왈,

“나는 그대로 말미암아 지하의 원혼이 되었거니와, 우리 백발 양친에게 불효를 끼치어 죽은 혼이라도 죄를 면치 못할지라. 그러하나 나 죽을 때에 부친께 청하여 남자의 신행(新行)*하여 가는 길가에 부디 묻어주시고, 한 봉서를 남자에게 부쳐주소서 하였으니, 남자는 그 서간을 찾아보라.”

하며 슬피 울거늘, 소저 그 말을 듣고 또한 눈물을 흘리며 울다가 놀라 깨달으니 침상일몽이라. 이에 일어나 슬피 왈,

“그는 남자로되 신(信)을 지키어 능히 죽었거늘, 나는 여자로서 오히려 그저 살았으니, 후일에 무슨 낮으로 양량을 보리요.”

하더니, 이후로부터 양생이 밤이면 소저와 침식을 한가지로 하여 즐기는지라. 일일은 소저 문왈,

“남군이 어찌하여 낮이면 종적이 없고 밤이면 오시나뇨?”

산백이 탄왈,

“유명의 길이 다르기로 그러하거니와, 오래지 않아 백주에도 다니며 즐기리라.” 하더라.

일일은 소저 문득 한 계교를 생각하여 내당에 들어가 모친께 고왈,

“소녀 들사온즉 아내가 남편을 따르는 것은 여자가 지켜야 할 당연한 도리이므로 몇몇한 바라 하거늘, 소녀 군자와 성례한 지 이미 오래오되 시부모께 찾아뵈지 못하였사오니 예를 차려 구가(舅家)*로 가고자 하나이다.”

한대, 상서 부부 대화하여 즉시 예법에 맞게 준비하여 칠보가마에 채의 시녀 옹위하여 구가로 보낼새, 소저 하직 왈,

“소녀 금일 슬하를 떠나오매 이후 자애로운 얼굴을 다시 뵈을 기약이 없사오니, 바라건대 부모는 장수를 누리소서.”

하거늘, 상서 부부 왈,

“네 이제 신행하여 구가로 가거늘 어찌 불길한 말을 하여 나의 심사를 어지럽히느뇨.” 하더라.

차설, 이때 산백의 영혼이 부모께 꿈에 나타나 왈,

“명일 추낭자 신행하여 저의 구가로 가오니 부디 그 서찰을 전하여 주소서.”

하고 문득 간데없거늘, 공의 부부 몽사를 서로 말하며 슬피하다가 날이 이미 밝으매 창두를 당부하여 왈,

“이 봉서를 가지고 공자의 묘지 근처에 있다가 추상서 집 신행을 물어 추소저께 서간을 올리라.”

하니, 창두 명을 받들어 운남산 향림 고개에 이르러 기다리니 이윽고 과연 신행이 나오오거늘, 창두 추상서 집 신행임을 탐지한 후 가까이 나아가 서간을 올리며 남양 양상서 집 하인이라 한대, 소저 이미 짐작하고 문 왈,

“저 묘지는 뉘 집 묘지뇨?”

창두 왈,

“우리 집 소주인의 묘지로소이다.”

하거늘, 연망히 서찰을 펴보고 심중에 헤오되,

‘양생이 죽은 것이 분명하니, 내 어찌 홀로 살아 무엇하리요.’

하고 교차에서 내려 양생의 묘전에 앉으며 심생을 향하여 왈,

“이곳은 예전 운향사에서 동고하던 양산백의 무덤이라. 사생결의하여 천지께 맹세하였던 바로, 이제 이미 이곳에 이르러 그저 지나지 못하고 제사를 지내 신령이나 위로코자 하나니 괴이히 여기지 마소서.”

심생이 노왈,

“남녀유별하거늘, 아무리 유명이 다르나 어찌 부인이 남자에게 제사를 지내 타인의 시비를 취코자 하느뇨.”

하며 가기를 재촉하니, 소저 다시 화성유언(和聲諫言)*으로 애걸 왈,
 “첩이 어찌 꺼려하고 의심스러운 일임을 모르리요마는 성인도 형편에 따라 임기응변을 행하시는 곳이 있는지라. 이제 [A] 와 약속을 저버리면 귀신이라도 그리 여길지니, 비록 남녀 차이가 있으나 한번 묘지에 제사를 지냄이 무슨 방해로움이 있으리요.”

하거늘, 심생이 그 마음이 굳음을 보고 이에 마지못하여 허락하는지라. 소저 이에 묘지 앞에 나아가 제물을 벌이고 제문을 읽으니 그 뜻을 이루 기록지 못할러라.

이때 해가 빛을 잃고 어두운 구름이 참담하며, 사면에 안개 자욱하여 지척을 분간할 수 없는지라. 심생 일행이 그 까닭을 알지 못하여 의심하고 두려워 당황하더니, 문득 일진 대풍이 무덤 위로 일어나며 무지개빛이 비치면서 무덤이 갈라지거늘, 추씨 대화하여 치마를 거두쳐 안고 몸을 날려 묘지 중으로 뛰어드니, ㉠ 일행이 대경하여 급히 소저의 치맛자락을 잡아당긴즉, 그 치마 찢은 풀갈이 무너져 나비 되어서 땅으로 날아가고 무덤은 전과 같이 어우러지더라.

(중략)

차설, 이때 양산백과 추양대의 혼령이 가볍고 높게 떠서 방장산에 이르니, 태운선이 문왈,

“그대 양인의 인간 재미 어떠하뇨?”

양생이 절하여 왈,

“생의 인간 고초 이를 것이 없거니와, 다만 추양대와 더불어 인연을 맺지 못하고 청춘에 횡사하여 원혼이 되었사오니, 청컨대 소생과 추씨로 하여금 후생연분(後生緣分)을 있게 하소서.”

진인 왈,

“차후 인간 고락이 다하지 못하였거늘 인연 잇기가 무슨 근심이 있으리요.”

하고 즉시 지장왕께 여쭙니, 왕이 황건역사를 명하여 이르되, “이 두 사람을 데리고 인간에 내려가 혼백을 육신에 붙이고 오라.”

한대, 역사 명을 받들어 양인을 거느려 운남산으로 향할새, 한곳에 다다르니 산수는 수려하고 화초는 난만한데 단청을 곱게 하여 아름답게 꾸민 집이 아득하며 수놓은 문과 담장이 영롱하거늘, 양생이 문왈,

“이곳은 어디이며, 이 집은 뉘 집이뇨?”

역사 왈

“그대 인생살이에 시력이 상하여 고향을 모르는도다. 이 산은 봉래산이요, 이 집은 수정궁이라. 전일 그대 삼신산 신선과 더불어 풍경을 완상하여 세월을 보내더니, 이월 그믐은 영보도군(靈寶道君)의 탄일이라. 상제 잔치를 열어 즐기실새, 이때 낭자 참례하였다가 일시 춘정을 이기지 못하여 그대와 더불어 외통함을 상제 아시고 그대 양인을 적강*하시니라.” 하더라.

차시는 추구월(秋九月) 보름이라. 월출동령하여 청광이 조용한 곳에 한 줄 무지개 월궁으로부터 일어나 하나는 추씨의 무덤에 박히고 하나는 양생의 무덤에 박히더니, 문득 두 무덤이 일시에 갈라지며 무덤 속 오운(五雲)이 일어나는 곳에 두 사람의 시체가 움직여 일어나며 무지개 다리를 쫓아 한곳에 모이매, 서로 반가움을 이기지 못하여 들입다 붙들고 왈,

“오늘날 우리 양인의 만남이 어찌 천정(天定)이 아니리오.”

하고, 서로 이끌어 평강으로 향하여 가니라.

- 작자미상, 『양산백전(梁山伯傳)』 -

* 신행 : 혼인 때 신랑이 신부집에 가거나, 신부가 신랑집으로 가는 일.

* 구가(舅家) : 시댁.

* 화성유언(和聲諫言) : 부드러운 음색과 아첨하는 말.

* 적강 : 신선이 인간 세상에 내려오거나 사람으로 태어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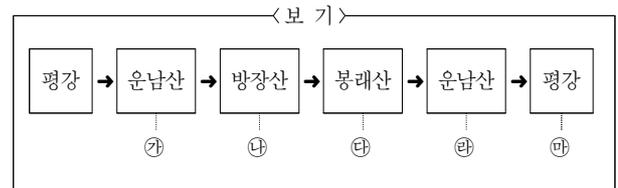
5. 위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추양대는 양산백의 서찰을 받게 될 것을 짐작하고 있었다.
- ② 추양대는 심생과 혼인한 후 양산백을 잊으려 애쓰고 있었다.
- ③ 양산백은 죽기 전에 추양대에게 전할 편지를 미리 써 두었다.
- ④ 양산백의 부모는 양산백이 꿈에 나타나서 한 부탁을 들어 주었다.
- ⑤ 심생은 추양대가 양산백의 제사를 지내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6. [A]와 [B]에 나타난 인물의 말하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에서는 구체적 사례를 활용하여, [B]에서는 사회적인 통념을 제시하여 상대방을 설득하고 있다.
- ② [A]에서는 다양한 비유를 활용하여, [B]에서는 권위자의 말을 인용하여 상대방의 주장을 비판하고 있다.
- ③ [A]에서는 성인의 경우를 예로 들면서, [B]에서는 기구한 운명을 하소연하면서 상대방에게 부탁하고 있다.
- ④ [A]에서는 상대방의 의견에 공감하면서, [B]에서는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면서 부드러운 어투로 말하고 있다.
- ⑤ [A]에서는 상대방의 태도를 비난하면서, [B]에서는 사건의 인과 관계를 따지는 방식으로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

7. 위 글의 공간을 사건 전개에 따라 <보기>와 같이 정리했다. 이를 바탕으로 위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에서 추양대는 창두를 통해 양산백의 무덤을 확인하게 된다.
- ② 추양대가 양산백의 무덤에 뛰어 든 후, 두 사람의 혼령은 ㉠로 이동하게 된다.
- ③ 양산백은 ㉠에서 있었던 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 ④ ㉠에서 양산백은 무덤 속으로 들어가 추양대를 구하게 된다.
- ⑤ 양산백과 추양대는 다시 환생하여 ㉠로 되돌아간다.

8. ㉠에 대해서 독자가 <보기>와 같이 반응하였다고 할 때,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보 기 >

“심생의 입장에서 ()할 만한 상황이겠군.”

- ① 교언영색(巧言令色)
- ② 동병상련(同病相憐)
- ③ 망연자실(茫然自失)
- ④ 풍수지탄(風樹之嘆)
- ⑤ 희희낙락(喜喜樂樂)

[9~1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마님, 나오리께서 드십니다.”

문밖에서 삼월이 아뢰었다. 윤씨 부인은 순인(順人) 차림이불을 걷고 일어나 앉는다. 차림이불의 갈매빛은 윤씨 부인의 병색과 더불어 우울하고 퇴색된 느낌을 준다.

최치수는 양 무릎을 모으고 앉았다.

“많이 편찮으신지요?”

눈빛을 감추며 시선을 방바닥에 떨어뜨린다.

“몸살인가 보다.”

윤씨 부인 역시 문갑 쪽으로 눈길을 보내며 대꾸했다.

“문 의원을 불러오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럴 것 없다.”

“하오나,”

치수는 친척히 눈을 들어 윤씨 부인을 바라본다. 시선을 느낀 윤씨 부인도 아들의 눈을 마주 대한다. **검은 점이 무수히 드러난 얼굴**이었다. 잠 못 이룬 탓인지 눈 가장자리에 달무리 같은 푸른 빛깔이 드리워져 있었다. 처연한 모습이다.

‘많이 늙으셨다.’

긴 눈매, 눈매 속의 눈동자만은 여전히 빛나고 있다. 의지와 힘이 사무친 듯 남아 있다. 머리 모양 옷매무새는 방금 자리에서 일어난 것 같지 않게 단정하여 변함이 없다.

치수는 어머니의 홀어진 모습을 본 일이 없었다.

‘여전하시다! 언제나 저 모습, 저 눈빛, 대장간에서 수천 번을 두드려 만든 쇠붙이 같았다.’

치수는 자신의 마음도 싸늘하게 식어가는 것을 느낀다. 많이 늙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전신을 뻗돌았던 뜨거움은 싸아 소리 내며 가시는 것 같았다. 단련된 쇠붙이와 쇠붙이었다. 싸움터에서 적과 적의 칼이 맞닥뜨린 순간이었다. 쌍방이 혼신의 힘으로 겨루는, **숨결조차 내기 어려운 침묵**. 긴장은 두 모자 사이의 공간을 팽팽하게 메운다. 치수는 **어머니의 뺨치는 힘이 전보다 가늘어진 것**을 느낀다. 대신, 보다 날카로워진 것을 피부로 심장으로 감득한다.

“요즘도 당산에 철포를 쏘러 다니느냐?”

“네.”

“힘을 과하게 써서 되겠느냐.”

“아니옵니다. 도리어 몸이 쾌적해지는 듯합니다.”

“.....”

윤씨 부인은 아들로부터 눈길을 거두었다. 치수는 햇빛이 부신 것처럼 눈 언저리를 좁힌다.

“뵈은 김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

“앞으로 혼자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남의 이목도 그러하거니와 서희에게 어미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거두어졌던 윤씨의 눈이 치수에게 쏠린다. 치수는 왜 자신이 그런 말을 했는가, 한번도 생각해본 일이 없는 결혼문제를 어찌 입밖에 냈는가. 치수는 그 까닭을 알지 못하였다.

㉠ “너 생각이 그렇다면 규수를 구해야겠지.”

‘왜 반대하지 않으십니까, 어머니.’

“그렇지, 서희에게도 어미는 있어야겠구나.”

‘그렇 리 있겠습니까. 서희에게 당치 않는 욕이 하나 생길 뿐이지요. 서희에게는 유순하고 글이나 읽으며 소일할 신랑감이 필요할 뿐이지요.’

서울 가서 병을 얻어온 후 어머니에게 조석으로 문안드리는 치수의 관습은 생략되어 왔다. 지극히 **자연스러운 회피**였었고 피차 부담을 덜어준 일이기도 했었다. 치수는 아직 자신이 소유한 토지가 얼마만큼 되는지, 일 년에 거두어들이는 곡식이 몇

석이나 되는지 정확히는 알지 못하고 있었다. 숙박당하지 않기 위해 그는 의식적으로 그런 일에 무관하려 했고 그만큼 윤씨로서는 보다 **무거운 굴레를 둘러쓴** 셈이요, **고통스런 세월을 보내기 위해** 그 굴레는 무거울수록 윤씨 부인이 원한 바였는지 모른다.

무당 월선네는 칼을 들고 미친 듯이 춤을 추었다. 꽃갓과 무복이 펠럭거렸다. 징소리 북소리가 요란했다. 월선네 얼굴에서는 땀방울이 뚝뚝 떨어졌다. 며칠 몇 밤이었다. 별안간 월선네는 칼을 집어던지고 할머니에게 달려가 무릎을 꿇었다.

“마님!”

할머니는 당혹했다. 눈을 깜박거리며 월선네를 내려다보았다.

“아씬 절로 가셔야겠습니다.”

[총략 줄거리] 윤씨 부인은 의도치 않은 혼외 자식을 비밀리에 출산하려 절에 가게 된다. 어린 치수는 어머니를 그리워하다가 어머니가 돌아오는 날을 맞이하러

이듬해 이월달 꽃바람이 부는데 어머니는 가마를 타고 돌아왔다. 치수는 미친 듯이 마을길까지 쫓아가서 가마를 따라왔다.

“어머님!”

마음이 급하여 가마를 따르며 불렀으나 가마 안에서는 아무 대답이 없었다. 가마가 내려지고 어머니가 뜰에 나섰을 때, 치수는 그 얼굴을 지금도 잊지 못한다. 백랍(白蠟)으로 빛은 사람 같았다. 모습은 그렇다 치고 어머니가 자기를 보는 순간 한발 뒤로 물러서며 도망갈 곳을 찾듯이 이리저리 뒤돌아보는 게 아닌가.

“어머님!”

불렀을 때 어머니의 눈은 불꽃이 튀는 듯 험악했다.

그토록 **오랜 시절 이별**하여 꿈에 그리던 어머니가, 그 동안 잘 있었느냐? 하며 부드러운 손길로 등을 어루만져줄 줄 알았던 어머니가 저릴 수 있는지 치수는 **눈앞이 캄캄**했다. 어머니는 할머니에게 인사를 올린 뒤 별당에 들었고 별당 문은 꼭 닫혀진 채 해는 저물고 말았다. 이때부터 **모자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강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거부였다. 무슨 까닭으로 **자애스럽던 어머니는 남보다 먼 사람**이 되어 버렸는지 모를 일이었다. 치수의 소년시절은 어둡고 고독했다. 허약하여 본시부터 신경질적인 성격은 차츰 잔인하게 변하였으며 방약무인(防藥無人)의 젊은이로 성장했다.

- 박경리, 「토지」 -

(나)

S#58. 안방(낮)

병색이 완연한 윤씨가 ㉠ **차림이불**을 덮고 누워 있다.

소 리 ㉡ **마님, 나오리께서 드십니다.**

㉢ **윤씨 이불을 걷고 일어나 앉는다.** 들어오는 치수 양 무릎을 모으고 앉는다.

치 수 ㉣ **많이 편찮으신지요?**

윤 씨 몸살인가 보다.

치 수 문 의원을 불러오는 게 어떻겠습니까?

윤 씨 그럴 것 없다.

치 수 하오나.....

윤 씨 장암 선생께서는 요즘 차도가 있으시더냐?

치 수 어려우실 모양입니다.

윤 씨 근자에 가 뵈었더냐?

치 수 못 가 뵈었습니다.

윤 씨 그래서야 쓰겠느냐?

치수 사냥을 떠나기 전에 가 봐어 문안올리고 오겠습니다.
 윤씨 산으로?
 치수 예.

모자의 눈이 부딪친다. 열을 뽀다 서로의 눈이 싸늘히 굳어진다. 치수의 두 눈에서 OL*

S#59. 마당(회상)
 김 서방 사랑채로 뛰어오며,
 김 서방 도련님. 마님이 오십니다.
 치수 어머니!

어린 치수 버선발로 토방을 건너 뛰어 마당에 내려선다.

치수 ㉠어머님!
 대문께로 뛰어간다.

S#60. 대문 앞(동. 회상)
 당도한 가마에서 내려선 윤씨. 얼굴빛이 밀랍처럼 창백하다. 치수를 보는 순간 한걸음 뒤로 물러서는 윤씨.

치수 (놀라서) 어머니.
 불꽃이 이는 듯한 윤씨의 두 눈.

*OL: 하나의 화면이 끝나기 전에 다음 화면이 겹치면서 먼저 화면이 차차 사라지게 하는 기법.
 - 박경리 원작, 이형우 각색, 「토지」 -

9. (가)의 서술상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풍자적 서술을 통해 인물의 부정적 행위를 비판하고 있다.
- ② 작품 밖 서술자를 통해 인물의 내면 심리를 제시하고 있다.
- ③ 시대적 배경을 제시하여 사회 현실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 ④ 의식의 흐름 기법을 활용하여 인물의 내적 욕망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인물의 과장된 행동을 통해 비극적 분위기의 반전을 꾀하고 있다.

10.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윤씨 부인의 '검은 점이 무수히 드러난 얼굴'을 통해 치수가 '어머니의 뺨치는 힘이 전보다 가늘어'졌다고 느낀 이유 중 일부를 짐작할 수 있겠군.
- ② 치수가 윤씨 부인과 '오랜 시일 이별'했다는 사실을 통해 현재의 치수가 '고통스런 세월을 보내기 위해' '무거운 굴레를 둘러싼' 이유를 짐작할 수 있겠군.
- ③ '모자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강물이 흐르기 시작했다'는 것을 통해 현재의 치수가 윤씨 부인을 '회피'하는 행위가 '자연스러운' 이유를 짐작할 수 있겠군.
- ④ '자애스럽던 어머니'라는 치수의 기억을 통해 어린 치수가 윤씨 부인과 재회한 후 '눈앞이 캄캄'할 정도로 충격을 받게 된 이유를 짐작할 수 있겠군.
- ⑤ 어린 치수가 윤씨 부인을 '남보다 먼 사람'이라고 여긴 것을 통해 쌍방의 '숨결조차 내기 어려운 침묵'의 이유를 짐작할 수 있겠군.

11. [A]와 [B]를 고려하여 (나)의 촬영 대본을 작성할 때, <보기>를 바탕으로 ㉠~㉣에 대해 감독이 메모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시나리오에 언급된 내용을 영상으로 구현하기 위해 영화감독은 촬영 대본을 작성하는데, 여기에는 연기, 의상, 소품, 녹음, 촬영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이 기록된다. 이때 원작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 원작의 구체적인 내용을 참고하여 촬영 대본을 작성하기도 한다.

- ① ㉠: 시나리오에는 차렵이불의 색깔이 언급되어 있지 않으므로 원작을 고려하여 갈매빛 이불을 소품으로 준비할 것.
- ② ㉡: 시나리오에 누가 대사를 할지 언급되어 있지 않으므로 원작을 고려하여 삼월을 연기하는 배우의 목소리를 녹음할 것.
- ③ ㉢: 윤씨를 연기하는 배우는 원작의 윤씨 부인의 모습을 잘 드러내기 위해 옷매무새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주의할 것.
- ④ ㉣: 치수를 연기하는 배우는 원작을 고려하여 대사를 마친 후에 윤씨를 연기하는 배우와 시선을 마주치도록 할 것.
- ⑤ ㉤: 치수를 연기하는 배우는 원작과 같이 윤씨 부인을 향한 어린 치수의 마음이 잘 드러나도록 다급한 어투로 말할 것.

[12~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앞부분 줄거리] 전우치는 명나라 황제를 도술로 속여 황금 들보를 바치게 하고 조선으로 떠난다. 화가 난 명나라 황제는 조선에 전우치를 잡아 바치라고 명한다.

“소신은 전우치입니다. 전하께옵서 소신 때문에 근심을 파히 하사 소신의 아버지를 잡아 가두시기에 소신이 탄원을 하고자 하여 왔사오니, 엇드려 원하옵건대 전하께서는 소신 아버지의 죄를 용서하시고 직위를 올려서 강원 감사를 제수하옵시면, 소신이 대국에 잡혀가서 무사히 감당하리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소신을 전하께서 아무리 잡으려 하실지라도 잡지 못할 것이옵니다.”

임금이 듣고 크게 놀라 물었다.

“네가 우치라 하니, 대국에 가서 무슨 장난을 하였기에 황제가 조서(詔書)를 내려 우리나라에까지 폐가 되게 하는가?”

우치가 대답했다.

“소신이 황제를 속인 이유는 다름이 아니오라, 우리 조선을 소국이라 하여 매양 업신여겨서였습니다. 소신이 비록 어리고 철이 없사오나 그 일에 통분하여, 대국에 들어가 이러이러한 일로 황제를 속이고 재주를 발휘하여 대국의 위엄을 꺾으려 한 것일 뿐, 다른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소신을 아무리 잡으려 하여도, 대국의 힘으로는 잡을 길이 없으즉 분함을 이기지 못해 본국으로 사신을 보낸 것이옵니다.”

임금이 듣고 말했다.

“너의 재주가 그러하면 한번 구경하고자 하니 시험하여 특별히 재주를 보여 주면 네 원대로 해 주겠다.”

우치가 아뢰기를,

“신의 재주를 구경하시겠다면 시험하겠습니다마는 전하께서 놀라실까 하옵니다.”

임금이 말했다.

“그것은 염려하지 말고 시험하라.”

우치가 재주를 부리는데, 이윽고 천지가 자욱하며 지척을 분별치 못하게 되었다. 임금이 괴이히 여기다가 주위를 둘러보니, 갑자기 맑은 바람이 일어나며 구름과 안개가 걷히고 날씨가 명랑하였다.

(중략)

이어 피리 소리 한 곡조에 사면으로부터 선녀와 선관들이 무수히 다가오고 있었다. 임금이 그제야 기이하다 싶어 자세히 보니 바람이 그치며 물결이 잔잔한데, 그 선관 선녀들이 흑표주박도 타고, 흑연잎도 타고, 흑고래도 타고, 흑수레도 타고 들어오더니 배를 한데 대고 말했다.

“조선국 왕은 우리를 모르십니까? 첫째는 일각로요, 둘째는 이태백이요, 그 나머지는 신선들 아무아무입니다. 왕이 인간 세상에 내려와 연기를 쓰이더니 눈이 어두워져서 전생에 함께 놀던 벼를 모르도다.”

선녀를 명하여 술을 청해 올리기에, 임금이 웬일인지 모르고 술을 받아 마시니, 정신이 상쾌하여 전생 일이 생각났다. 전생의 태을선(太乙仙)으로 인간 세상에 귀양 온 일과 그때 같이 놀던 벼들이 그제야 생각났다. 임금이 반겨 손을 잡고 그간 그리던 심정을 이야기하니 모든 선관이 대답했다.

“태을선은 인간 세상의 재미 어떠한고? 손오공의 도술로 이곳에 와서 옛날 친구를 만나니 우치의 덕이로다.”

임금이,

“묻노니, 우치는 어떠한 사람이고?”

하니, 선관이 말했다.

“우치는 손오공이라. 하늘나라와 지하와 수궁을 모두 출입하는 재주를 품었으니 업신여기지 말라. 우리는 때가 늦어서 돌아가니 이후에 다시 만나자.”

이어 잔치 끝내는 노래를 피리로 불며 이별하였다. 임금이 바라보니, 선관 선녀들이 각각 배를 띄우고 가는데, 풍량이 크게 일어나고 채색 구름이 두르니, 지척을 분별할 수 없어 가는 곳을 알지 못하였다. 이윽고 구름과 안개가 걷히며 햇빛이 빛나니, 임금이 그제야 살펴보았다. 그 사이에는 만첩태산이 둘러 있고 층암절벽이 반공에 달렸는 듯한데, 굽은 노송은 광풍에 흐트러져 넓은 바위를 덮은 가운데 자신이 홀로 앉아 있었다. 임금이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아까 풍랑 중에 죽을 것을 선동이 구하여 살아났더니, 알지 못하겠도다, 어찌 이곳에 왔는고? 그러나 인적이 없고 산세는 험하니 가히 슬프도다.’ 하며, 장차 돌아갈 길이 막연하여 탄식하고 있었다. 뜻밖에 백호가 입을 벌리고 달려들기에, 임금이 놀라 엎드려졌다. 그때 선녀들이 놀라 모셔다가 붙들어 앉히자, 임금이 다시 정신을 차려 보니, 자신은 전상(殿上)의 왕좌에 앉아 있는데, 주위의 여러 신하가 시위하고, 우치가 땅에 엎드려 있었다. 임금이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반드시 잠을 들어 괴이한 춘몽을 꾸었도다.’ 하시고, 신하들더러 물었다.

“과인이 그 사이에 잠을 들었던가?”

여러 신하가,

“전하께서 잠드신 적 없사옵니다.”

하고 아뢰었지만, 임금이 그런 줄을 알지 못하였다. 우치가 머리를 조아리며 사례하여 아뢰었다.

“전하께서는 영주 삼신산(三神山)을 보시니 어떠하옵니까? 그러하오나, 바다 가운데서 풍랑에 고생을 하시고 봉래산 바위 위에서 백호를 만나시니 두렵지 아니하셨습니까?”

임금이 그제야 우치의 도술에 속은 줄 알고, 크게 칭찬하기를, “너의 재주는 진실로 고금에 없도다.”

하고 신하들에게 자신이 겪었던 일을 자세히 이야기하니 다 듣고 모두가 신통하게 여겼다.

이때, 임금이 하교하되,

“이 애를 불가불 대국에 잡아 보낼 터이니 제 원대로 할 수밖에 없다.”

하고, 진중보를 즉시 석방해 임금의 뜻을 전하고는 강원 감사를 제수하였다.

- 작자미상, 「전우치전」 -

12. 윗글의 서술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여러 가지의 사건이 역순행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 ② 인물의 외양 묘사를 통해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 ③ 서술자가 개입하여 사건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④ 사건이 진행됨에 따라 인물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 ⑤ 인물의 대화와 행동을 중심으로 서사가 진행되고 있다.

13. 윗글의 내용으로 보아, [A]에 나타난 '우치'와 '임금'의 주된 협상 전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우치와 임금은 모두 상대방이 원하는 바를 확인한 후, 그 절충점을 찾아 타협하고자 한다.
- ② 우치는 자신의 능력을 부각하여, 임금은 자신의 권위를 앞세워 각자 자신이 원하는 바를 상대방이 수용하도록 강요한다.
- ③ 우치와 임금은 상대방의 주장에 문제가 있는 점을 지적하며, 각자 자신이 원하는 바를 상대방이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④ 우치는 자신이 원하는 바와 상대방이 원하는 바의 교환을 요구하고, 임금은 수락의 조건으로 상대방의 능력을 확인하고자 한다.
- ⑤ 우치는 상대방에게 자신이 원하는 바를 들어달라고 공손히 요청하고, 임금은 먼저 자신이 원하는 바를 상대방이 수용하라고 명령한다.

14.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고전소설 중에는 초월적 능력을 지닌 인물이 도술을 사용하여 '현실 세계'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환상 세계'를 만드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환상 세계는 현실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거나 거기에서 벌어지는 일을 현실 세계의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환상성을 지닌다. 그리고 한편으로 시공간이나 인물, 사건 등의 이어짐을 통해 작품 속의 현실 세계와 관련을 맺는다.

- ① 우치는 자신의 초월적 능력을 발휘하여 '현실 세계'에서 경험할 수 없는 '환상 세계'를 만들어냈다.
- ② '환상 세계'에서도 임금이 여전히 조선의 왕으로 설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현실 세계'와 관련을 맺고 있군.
- ③ 우치의 도술로 임금이 '환상 세계'를 경험한 일을 '현실 세계'의 신하들이 인식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환상성을 확인할 수 있군.
- ④ '환상 세계'의 경험이 임금에게 '현실 세계'의 우치를 인정하도록 만드는 실마리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사건의 이어짐을 확인할 수 있군.
- ⑤ 임금이 '환상 세계'에서 우치를 만나 벗이 된 일을 '현실 세계'에서 잊어버리고 있다는 점에서 환상성이 강조되고 있다고 볼 수 있군.

빠른정답.

1	5	3	1	2
3	4	3	2	2
4	5	4	5	

[1~4] (현대시) 박두진, 「향현(香峴)」 문병란, 「꽃씨」 김명수, 「침엽수 지대」

1. [출제의도] 작품 간의 공통점 파악하기

(가)에서는 ‘누거 만년(累巨萬年)’이라는 시어를 통해 ‘산’이 오랜 시간 동안 억눌리고 움츠린 채 수동적인 모습으로 존재해 왔음을 말하고 있으며, (나)에서는 여름에서 가을로 이어지는 동안 화려한 모습의 ‘꽃’이 ‘꽃씨’로 여무는 모습을 내적 성숙의 과정과 관련시키고 있다. (다)에서는 ‘일월성신 잦은 계절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늘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침엽수’의 의연한 모습에 주목하고 있다. ② (나)의 ‘고이 머물어 가는 빛나는 외로움!’에서만 확인할 수 있다. ④ (가)와 (나)에서는 영탄적 표현을 통해 감정을 표출하고 있다.

2. [출제의도] 자료를 활용하여 시 감상하기

마지막 연에서 화자는, ‘여우 이리 등속’이 미래에는 약자들의 삶을 유린할 강자가 아니라 ‘사슴’, ‘토끼’와 더불어 평화롭게 화합하고 살아가기를 바라고 있다. 여기에는 약육강식의 논리를 극복하고 모든 구성원들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살 수 있기를 염원하는 작가 의식이 깃들여 있다고 할 수 있다.

3. [출제의도] 시적 소재의 속성 파악하기

㉔는 가을이 되어 화려한 꽃잎이 떨어지고 ‘꽃씨’로 머물게 되는 존재이며, ㉕는 외부적 환경이나 오랜 시간의 변화에도 변함없는 모습을 지니고 있는 존재이다. ㉖ (나)는 ‘꽃’이 ‘꽃씨’로 여무는 과정을 통해 삶의 내적인 모습을 성찰하고 있는 시이므로 ㉔가 시대 현실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4. [출제의도] 시어의 의미 파악하기

‘술한 잎’과 ‘꽃’의 ‘찬란한 빛깔이 사라진’ 상태인 가을이 내면적 성숙이 이루어진 시기라고 볼 수 있으며, ‘핏빛 꽃들이 ‘뭉부림’하는 시기인 ㉑은 아직은 내면적 성숙을 이루지 못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5~8] (고전소설) 작자미상, 「양산백전(梁山伯傳)」

5. [출제의도] 세부 내용 파악하기

꿈을 깬 후 추양대가 독백하는 장면이나 신행 도중 양산백의 묘에 제사를 지내는 장면, 무덤이 열리자 기뻐하며 양산백의 무덤에 뛰어드는 장면 등을 통해 양산백을 향한 추양대의 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추양대가 심생과 혼인한 후 양

산백을 잊으려 애쓰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6. [출제의도] 말하기 방식 파악하기

[A]에서 추양대는 성인의 경우를 예로 들며 자신이 하고자 하는 행위가 형편에 따라 임기응변해야 할 특수한 상황 속에서의 행위임을 강조하고 있으며, [B]에서 양산백은 추양대와 의 인연을 다하지 못한 채 죽은 자신의 기구한 운명을 언급하며 추양대와 사랑이 지속되기를 소망하고 있다.

7. [출제의도] 공간에 따른 사건 전개 파악하기

㉔는 양산백과 추양대의 혼령이 각자의 시신(육신)으로 되돌아와 환생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공간이다. 이때 무덤이 열리고, 무지개가 무덤에 박히면서 다리가 되어 두 사람이 만나게 되므로 양산백이 무덤 속으로 들어가 추양대를 구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8. [출제의도] 한자성어의 의미 파악하기

㉑은 양산백의 무덤이 열린 후, 무덤 속으로 뛰어드는 추양대를 심생 일행이 붙잡고자 했으나 무덤이 닫혀 추양대를 놓치는 부분이다. 따라서 갑자기 아내를 잃게 된 심생의 입장에서는 ‘명하니 정신을 잃음’을 의미하는 ‘망연자실’할 만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㉒ 심생이 처한 상황으로 미루어볼 때 ‘아침하는 말과 알랑거리는 태도’를 의미하는 ‘교언영색’은 적절하지 않다. ㉓ 아내를 잃은 슬픔을 심생과 함께 나누며 서로 동정할 만한 인물은 없으므로, ‘같은 병을 앓는 사람끼리 서로 가없게 여김’을 의미하는 ‘동병상련’은 적절하지 않다. ㉔ ‘효도를 다하지 못한 채 어버이를 여인 자식의 슬픔을 이르는 말’인 ‘풍수지탄’은 심생의 부모가 돌아가신 상황이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㉕ 심생은 무덤으로 뛰어드는 추양대를 붙잡고자 했으나 놓친 상황이므로 ‘매우 기뻐하고 즐거워함’을 의미하는 ‘희희낙락’은 적절하지 않다.

[9~11] (현대소설, 시나리오) 박경리, 「토지」, 박경리 원작, 이형우 각색, 「토지」

9. [출제의도] 서술상의 특징 이해하기

‘치수는 자신의 마음도~피부로 심장으로 감득한다.’에서 작품 밖 서술자가 인물의 내면 심리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10. [출제의도] 구절을 통한 서사 내용 파악하기

서사 전개 상 ‘오랜 시일 이별’은 윤씨 부인이 절에 가서 치수와 이별하게 된 시간임을,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내기 위해’와 ‘무거운 굴레를 돌려 쓴’은 치수가 의도적으로 재산에 무관하려 하자 윤씨 부인이 치수의 재산에 관여하게 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무거운 굴레를 돌려 쓴’ 것은 치수가 아니라 윤씨 부인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㉑ ‘검은 점이 무수히 드러난 얼굴’은 윤씨 부인의 쇠약하고 늙은 모습을 묘사한 것이므로 치수가 ‘어머니의 뺨치는 힘이 전보다 가늘어’졌다고 느낀 이유로 적절하다. ㉓ ‘모자 사이

에는 보이지 않는 강물이 흐르기 시작했다’는 윤씨 부인과 치수의 갈등이 시작된 것을 의미하므로 적절하다. ④ ‘자애스럽던 어머니’라는 치수의 기억이 절에서 돌아온 후의 차가운 어머니의 태도로 인해 무너졌을 것이므로 적절하다. ⑤ ‘남보다 먼 사람’이라는 표현은 윤씨 부인에 대한 치수의 거리가 멀어졌음을 의미하므로 적절하다.

벗들을 만났다는 것이나 우치의 정체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임금이 우치를 직접 만났거나 우치와 벗이 되었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오답풀이] ③ 임금이 ‘환상 세계’를 경험한 후에 이를 신하들에게 말해주자 신하들이 신통하게 여기는 것으로 보아, 신하들은 임금이 겪은 일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11. [출제의도] 원작과 시나리오를 비교 감상하기

[A]에서 ‘치수는 양 무릎을~방바닥에 떨어뜨린다.’를 통해 치수를 연기하는 배우는 대사를 마친 후에도 계속 시선은 방바닥에 떨어뜨려야 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① [A]에서 이불의 소품은 ‘차렵이불의 갈매빛은’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② [A]에서 배우의 목소리는 ‘문밖에서 삼월이 아뢰었다.’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③ [A]에서 옷매무새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은 ‘머리 모양 옷매무새~변함이 없다’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⑤ [B]에서 다급한 어투는 ‘마음이 급하여’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12-14] (고전소설) 작자미상, 『전우치전』

작자와 창작 연대를 알 수 없는 고전소설로, 여러 사건들을 하나의 이야기로 연결시켜 놓은 삽화편집적 구성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고전소설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대표적 형식인 일대기적 구성이나 단일한 사건을 인과관계에 따라 전개 되도록 하는 사건 중심적 구성과는 다르다. 중심 줄거리는 전우치라는 인물이 도술로 부정적인 인물들을 징벌하고 우롱한다는 내용이다.

12. [출제의도] 작품의 서술상의 특징을 파악한다.

이 글은 우치가 아버지를 탄원하기 위해 임금을 만나 대화하는 부분, 임금이 도술 세계에서 여러 인물들을 만나 대화하는 부분, 다시 현실 세계에 임금이 우치와 신하들과 대화하는 부분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인물들의 행동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서사가 진행되고 있다.

[오답풀이] ④ 사건이 진행됨에 따라 우치와 임금 간의 갈등이 해결되어 가고 있다.

13. [출제의도] 인물의 말하기 방식을 이해한다.

임금이 원하는 바는 우치를 잡아 대국으로 보내는 것이다. 이에 우치는 아버지의 죄를 용서하고 강원 감사를 제수하면 이에 응하겠다고 한다. 그러자 임금은 우치가 재주를 보여주면 이에 응하겠다고 하여 우치의 능력을 확인하고자 한다.

[오답풀이] ② 임금이 자신을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잡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는 부분에서, 우치가 자신의 능력을 부각하여 임금에게 자신이 원하는 바를 수용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임금이 자신의 권위를 앞세워 우치에게 원하는 바를 수용하도록 강요한 부분은 확인할 수 없다.

14. [출제의도] 외적 근거를 바탕으로 작품을 감상한다.

임금이 ‘환상 세계’에서 옛날 벗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우치가 언급되는데, 내용은 우치의 덕으로 임금이 옛